

#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현황과 과제\* \*\*

강연호\*\*\* | 원광대

## < 목 차 >

1. 서론
2. 인문학과 인문도시
3.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현황
4. 결론에 대신하여-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과제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이른 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그 지역을 인문도시화하는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즉 시민들이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문강좌나 인문체험, 인문축제 등을 통해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반을 조성

\* 이 논문은 2015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이 논문은 원광대학교 프라임인문학진흥사업단 주최 제1회 익산학 심포지엄 (2016.11.4.)에서의 발표문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수정·보완한 것임.

\*\*\* 원광대학교 교수, 인문학연구소 연구원.

하는, 인문학 대중화와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겠다.

전라북도 익산은 지난 2015년부터 인문도시지원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1년차 사업이 완료되고 2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익산을 대표 인문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을 인문콘텐츠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목적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역사문화의 차원에서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하고, 시민정신의 차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예술의 차원에서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연계한 인문학 일상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사업의 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바람직한 진행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인문도시, 인문학, 익산, 역사고도, 인문 르네상스 다다익산, 역사문화, 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 1. 서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풍이 자못 상당하게 불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학 관련 학문의 위축과 몰락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선 인문학에 대해 팽배한 위기 담론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인문학 관련 강좌나 체험행사 등이 차고 넘칠 정도로 다양하게 기획 운영되고 있다. 방송과 언론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나서서 저명한 인문학자들을 내세운 각종 인문학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문도시지원사업”<sup>1)</sup>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

1)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공모하

루어지는 인문학 관련 사업의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을 수 있겠다. 인문학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열기 역시 상당히 해서 지역마다 인문학 관련 행사들을 적극적으로 찾는 고정 수요가 생길 정도이다. 어떤 점에서는 인문학의 과잉이 우려될 정도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인문학적 소양 강화는 한국 사회의 성숙과 시민의식의 함양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대학으로 눈을 돌려보면 인문학은 작금의 팽배한 우려 그대로 몰락과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그 미래가 암울하다. 한국의 대학들은 현재 인구 변화와 학생 자원의 감소로 인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걸고 각종 기획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재정지원의 선제 조건으로 대부분 대학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구조조정의 실체는 사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심화된 대학 운영의 위기와 이에 대한 출구 정책의 모색에서 도출된 방안들이다. 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학들은 결국 철학이나 문학, 그리고 역사 등 이른바 인문학을 대표한다는 학과들의 통합이나 정원감축, 혹은 폐과 등의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구조조정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형편이다. 작금에는 학생들 역시 대학을 미래의 성공이나 취업 보장을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의 기술학교 과정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과목이나 과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러니 자연히 인문학 관련 전공이나 교양과목들은 급속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기조차 하다. 한편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관심과 열풍이 상당한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문학의 암울한 미래가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 자체로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가령 인문학 진흥을 위한 여러 사업들 중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인문도시지원사업’이나, 반대로 인문학 관련 전공의 축소와 구조조정

---

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 현재 전국에서 31개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는 ‘프라임사업’<sup>2)</sup>이 모두 교육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양상을 고려하면서 이른바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한 마디로 말해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그 지역을 인문도시화하는 의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 주도의 기획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에 의해 공모와 선정 과정을 거쳐 지자체의 일정한 대응지원과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라북도 익산은 지난 2015년부터 인문도시지원사업을 진행하여 현재 1년차 사업이 시행 완료되고, 2년차 사업이 막 시작되고 있는 중이다. 비록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성과를 객관적인 통계나 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물론 인문학 관련 사업들의 바람직한 진행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인문학과 인문도시

앞서 언급했듯이 팽배한 인문학의 위기론이 무색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은 자못 성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인문학과 관련하여 “사회에서의 풍요와 대학에서의 빈곤이라는 모순된 현상”<sup>3)</sup>을 직시하

---

2) 프라임(PRIME: Program for Industrial needs-Matched Education) 사업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으로서, 사회와 산업의 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2016년부터 3년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학인력이 부족한, 이른 바 인력 미스매치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어 인력 인문·예체능계의 정원을 줄이고, 이공계 정원 확대와 학내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에 모두 21개 대학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다.

고 이에 대한 타개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말이다. 사실 어떤 점에서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인문학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sup>4)</sup>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풍토와 시장 경쟁의 횡행 속에서 인문학은 더 이상 아무런 실용성을 갖지 못하는 학문일 뿐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현대의 고착화된 사유에서 벗어난 창의성의 원천으로 인문학의 필요성이 적극 강조되기도 한다. 인문학이란 어쩌면 인문학에 대한 이와 같은 이중적이며 상반된 태도에 대해 고민하며 생존을 모색하는 과정 그 자체에서 스스로의 입지와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인문학이 처한 이와 같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상당하다. 물론 현재까지 각종 인문학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정부나 연구기관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외연이 단기간에 크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만하다.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주도하고 있는 ‘인문도시지원사업’ 역시 이러한 정부 지원의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하나다. 서구 시민사회의 형성과 달리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비교적 단기간에 증폭된 것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관주도의 정책과 사업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비례하여 여러 시민단체나 자치모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기획 진행되는 인문학 프로그램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연구재단의 기획 공모에 의해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인문도시지원 사업은 2016년 현재 전국에서 31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sup>5)</sup> 지난 2013년에 5개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4년에 17개, 2015년에 25개, 그리고 2016년에 모두 31개 사업이 지역 권역별로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는

- 
- 3) 강연호, 『공감과 성찰로서의 문학적 상상력과 인문학』,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6집 2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384쪽.
  - 4) 박진우, 『어떤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가: ‘언론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인문학’의 현실과 과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9, 한국언론학회, 2013, 14-15쪽.
  - 5) 2016년 현재 권역별로 수도권 8개 사업, 강원권 3개 사업, 충청권 5개 사업, 호남권 5개 사업, 대경권 4개 사업, 부울경 5개 사업, 제주권 1개 사업 등이 선정되어 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개념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연구재단이 신청요강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한다.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문도시지원사업 신청요강』에는 다음과 같이 사업 목적, 인문도시의 개념,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 등이 제시되어 있다.

■사업 목적

- 일반 시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인문학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
-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여 학계와 일반 사회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인문학의 사회적 역할 증진에 기여.

■개념

‘인문도시’란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등을 통해 인문학(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등)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 ‘인간과 그 삶의 가치’ 회복을 추구하는 인문공동체를 의미함.

■궁극적인 목표

인문학을 기반으로 인간다움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구현, 지역 및 국가 정체성 확립, 사회통합, 건전한 시민정신 배양,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경제적 이익 창출 등<sup>6)</sup>

이와 같은 신청요강에 제시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인문도시지원사업의 개요와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략적인 정리가 가능하다. 즉 첫째, 인문학을 기반으로 대상 지역의 인문공동체를 추구하는 사업이라는 것. 둘째,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일반 시민에게 확산시켜 일상 속에서 인문학에 대한

---

6) 한국연구재단, 『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문도시지원사업 신청요강』, 2015, 6-8쪽.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것 등이다.

현재 인문도시지원사업은 1년이나 3년 사업으로 기획되고 있다. 한 도시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실제로 시행하여 1년이나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일정한 성과까지 도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인문정책의 경우 가시적인 성과 도출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과 꾸준한 시행과정이 요구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인문도시지원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목적이나 방향은 사실 정책의 실현이나 완성도를 요구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인문학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강좌나 체험, 축제 등을 통해 인문학의 저변 확대와 기반 조성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실제와 부합한다. 결국 사업의 규모나 현실성을 감안하면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인문도시의 구축 자체보다는 인문도시 구축을 위한 저변을 깔고 다지는, 인문학을 활성화하는 기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인문도시의 개념 속에 특히 눈에 띄는 ‘인문공동체’라는 개념 역시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개념은 시민들이 공동체로서의 의식, 즉 ‘공동체감’을 갖고 있을 때 시민사회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sup>7)</sup>는 점에서, 공동체감 의식의 기반으로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대를 추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 공동체 구축을 위한 인문학”을 통해 인문학이 시민의식의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탐색<sup>8)</sup>하는 것은 특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한국 사회는 흔히 급속한 경제 성장과 물질적 풍요에 비해 시민의식의 성숙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지적을 받곤 하는데, 이런 진단에 대한 근본적 처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원래 인문학은 그 자체로 ‘-학’이라는 명칭이 함의하고 있듯이 대학 중심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인문학은 그 역사와 전

7) 알프레드 아들러, 라영균 옮김, 『인간이해』, 일빛, 2009, 166-185쪽 참조.

8) 박연규, 『인문도시를 위한 인문정책 방향: 수원시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8권0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39쪽.

통을 감안하면 인간의 정신학이자 문화학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는 인문학은 연구 학문이라기보다는 삶과 세상에 대한 인식의 제고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의 성격이 더욱 부각되곤 한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틀 속에서 진행되는 것에서도 인문학을 학문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삶과 세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나 제고의 차원에서 살피려는 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에서의 인문학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대체로 고답적인 학문의 영역으로만 간주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도는 인문학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향을 새롭게 설정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찍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한 얼 쇼리스는 “인문학을 공부하면 여러분은 ‘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인문학을 통해 “정치적 주체로 선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이 된다는 뜻”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sup>9)</sup>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의 원제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부(Riches for the Poor)’인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는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다는 의미에서의 진정한 부자”<sup>10)</sup>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도 삶과 세상에 대한 인식의 제고나 전환의 역할로서 인문학에 대해 대중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인문학 대중화 사업에서 인문학은 우선은 시민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인문학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신청요강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이 사업이 강좌 중심만이 아니라, 인문강좌, 인문체험, 인문축제라는 세 가지 큰 줄기로 구성된다는 사실이다. 신청요강에는 지원형태를 “연구자와 지역체간 협업을 통해 추진되는 지역의 인문자산을 활용한 인문강좌, 체험, 축제 지원”<sup>11)</sup>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으로서 인문도시지원사업과 유사하면서도 대략 이전 단계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sup>12)</sup>과 비교하여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시민인문강좌지원사

9) 얼 쇼리스, 고병헌·이병곤·임정아 옮김, 『희망의 인문학』, 이매진, 2006, 35쪽.

10) 같은 책, 218쪽.

11) 한국연구재단, 앞의 글, 8쪽.

12)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은 한국연구재단에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



업은 사업명에도 나타나 있듯이 강좌 중심의 사업인데 반해 인문도시지원 사업은 강좌 외에도, 체험, 축제라는 큰 틀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학 활성화에 맞게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즉 시민들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인문강좌 중심이 아니라, 그와 병행하여 직접 참여하여 체험하며 함께 즐기는 가운데 시민의식을 함양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인문학의 중심 주체로 나서게 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이 인문학 강좌에 국한하지 않고 직접적인 체험과 축제 형식을 부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문도시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인문도시의 지향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논의가 한창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성과를 객관적인 통계나 지표로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인문학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량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인문도시의 방향이 적어도 다음의 언급과 전혀 달라지지는 않아야 할 것이다. 즉 “시민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조금은 불편해도 사람 사는 냄새나는 공간, 인간의 심성을 자극하여 더욱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그래서 도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은 인문도시를 지향해야 한다”<sup>13)</sup>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지금 사회에서 비록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해도, 사실 이들 대부분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학문이나 지식을 일반 대중에게 옮겨 소개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어떤 점에서는 대학에서의 인문학 관련 전공의 위기론에 대한 타개책의 하나로 시민과 사회가 제시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각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과정이나 이유가 어떻든 인문학 자체의 성격이 긍정적이고 사회에서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시민을

---

으로 학문성과의 적극적 사회 환원으로 인문학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인문학에의 접근이 어려운 대상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3) 유승희, 『인문도시의 가능성』, 『플랫폼』 18호, 인천문화재단, 2009, 14-15쪽.

교화하고 계몽하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즐기고 체험하는 인문학 콘텐츠가 더욱 다양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문으로서의 인문학도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이른바 문사철(文史哲) 중심의 순수 인문학적 성찰을 넘어서서 사회과학과 지역학, 도시학 등을 포괄하는 학제간 융합 학문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 3. 익산 인문도시 조성의 현황

전라북도 익산은 인구 30만 정도<sup>14)</sup>의 지방 소도시로서 2016년 현재 전라북도에서 전주, 군산 등과 함께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대상 도시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익산 소재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크고 작은 인문학 관련 사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는 지난 2007년에 처음으로 “인문학, 열린정신과 만나는 길”이라는 주제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주간 행사를 수주하여 운영한 바 있는데, 이후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인문학 활성화 사업을 펼치게 된다. 2016년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인문주간 외에도, 2011년 “삶의 지혜와 세상읽기 인문학”과 2013년 “도서관 인문학-소통, 치유, 창조의 인문공간” 등을 주제로 한 시민인문강좌지원사업 역시 한국연구재단의 공모에 선정되어 진행된 인문학 관련 사업들이다. 또한 2011년 “녹색인문학, 미래를 사유하다”라는 주제의 평생학습도시조성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젝트와 2014년 “가람시조아카데미”는 인문학연구소가 각각 익산시와 익산문화재단에서 수주한 인문학 관련 사업들이다. 이처럼 지역사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문학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다가 마침내 지난 2015년에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향후 3년간 여러 인문학 관련 강연이나 인문체험, 인문축제 등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익산 인문도시사

---

14) 익산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14년 기준 308,361명이다.(익산시청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

업의 배경에는 이와 같이 인문학연구소에서 벌여온 여러 인문학 사업의 성과가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겠다.

전라북도 익산은 외형적으로는 지방의 한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2천년 역사의 깊이와 넓이를 가진 고도(古都)다. 즉 익산은 백제를 비롯해 고조선 역사의 정통성까지도 계승하고 있는 역사 고도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익산 지역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는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 부여와 함께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지난 2004년에 익산은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고도(古都)로 정식 지정되어 고도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006년부터 시작된 ‘익산역사유적지구’ 세계 유산 등재 추진 사업이 2011년에 공주, 부여와 함께 ‘백제역사유적지구’로 등재 신청이 진행되어, 마침내 2015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이때 지정된 전체 8건의 백제문화유산 중 익산은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2건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백제문화 유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국내 최고(最古) 최대의 ‘미륵사지 석탑(국보11호) 복원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백제 문화와 익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지난 2009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 작업 과정에서 발견된 국보급 유물 ‘사리장엄(舍利莊嚴)’을 비롯해 9천9백 여 종에 달하는 다양한 출토 유물 역시 익산의 역사문화 유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생산하여 고도 익산의 인문학적 자산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익산의 국가지정문화재는 2015년 현재 총 96건인데 이중 국가지정문화재가 20건이며, 전라북도지정문화재가 54건, 등록문화재 9건, 익산시 향토유적 13건 등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모두 포함하여 익산지역 문화유산은 모두 689건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들 중 중요 문화유산은 주로 백제시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sup>15)</sup> 익산은 또한 불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기독교, 그리고 원불교 등 4대 종교의 성지 및 종교문화 유산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미륵사지 석탑으로 대표되는 사찰 미륵사지와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를 기리는 나바위 성당, 독특한 한옥 양식을 차용한 두동교회, 소태산 대

15) 문이화, 「고도 익산 백제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 『마한백제문화』 26권0호,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5, 97-98쪽.

중사의 종교적 의미를 품은 원불교 총부가 모두 익산에 소재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익산의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는 지난 2015년에 한국연구재단의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지원 선정되어 전라북도 익산시를 인문도시화하는 여러 사업들을 벌이게 된다. 익산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다양한 역사문화 유산을 인문콘텐츠로 활용하여 여러 인문도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익산을 대한민국의 대표 인문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인문학적 기반을 다져 시민의 문화적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문학적 소양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한 마디로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과 인문학 자산을 시민들과 함께 키워나감으로써 장차 도래할 문화적 중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익산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사업 주제와 추진 목적은 다음과 같다.

■사업 주제

“인문 르네상스 다다익산(多多益山)-역사고도 인문도시 익산”<sup>16)</sup>

■추진 목적

- 지역의 역사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인문학 대중화 ⇨ 역사문화
-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문화서비스 제공 ⇨ 시민정신
-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연계한 인문학 일상화 ⇨ 문화예술

익산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주제를 “인문 르네상스 다다익산(多多益山)-역사고도 인문도시 익산”으로 설정하게 된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다. 익산은 마침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 등재, 미륵사지석탑 복원 진행,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익산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진행, 그리고 익산을 경유하는 호남 고속철도(KTX)의 완전 개통 등과 같은 지역의 여러 이슈들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적 중흥의

---

16) 이하 이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2015년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인데, 인문도시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인문 르네상스로 거듭나는 고도 익산의 인문학 발전 계획을 형상화하여 “인문 르네상스 다다익산(多多益山)-역사고도 인문도시 익산”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다다익산(多多益山)’이라는 표현은 널리 알려져 있는 한자성어 ‘다다익선(多多益善)’을 지역명 ‘익산(益山)’과 결합하여 창안한 것으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도록 하는 기회가 ‘맑을수록 좋다’는 의미와 함께 인문도시사업을 쉽게 기억하도록 하자는 뜻도 담고 있다.

익산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추진 목적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추진 목적은 각각 ‘역사문화’, ‘시민정신’, ‘문화예술’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성안됨으로써 익산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며, 시민정신의 함양에 이바지하고, 문화예술과 인문학의 활성화라는 지향점을 담아내고자 했다. 즉 역사문화의 차원에서 지역의 역사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하고, 시민정신의 차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성숙한 시민사회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문화예술의 차원에서 지자체의 문화정책과 연계한 인문학 일상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전체 3년으로 프로그램된 익산의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연차별로 특색을 달리하여 1년차는 ‘인문 공감 익산’, 2년차는 ‘인문 부흥 익산’, 그리고 3년차는 ‘인문 수도 익산’이라는 단계별 목표의 이행 계획에 맞춰져 있다.

#### ■1년차 : 인문 공감 익산

1년차에는 이천년 고도 익산의 역사적 가치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의 가치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는 인문강좌와 인문체험, 인문축제의 장을 마련해 봄으로써, 익산시민들로 하여금 인문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대적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인문학적 마인드를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2년차 : 인문 부흥 익산

2년차는 인문 부흥 기간으로 설정하고, 익산 전체에 인문학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추진한다.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익산

시민이 반드시 지녀야 하는 이타의 정신과 인문 공동체의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강좌를 실천적 관점에서 진행한다. 이를 위해 건전한 상식과 상생의 사회정신이 도시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 ■3년차 : 인문 수도 익산

3년차에는 1년차 프로그램과 2년차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익산시가 실질적인 인문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인문강좌의 경우 글로벌 시대의 시민의식의 선진화 방향을 모색하고 인문 수도 익산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강좌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인문체험과 인문축제 역시 일상과 예술 작품 속에서 인문정신을 발견하고 통섭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인문 수도 익산의 이미지를 공고히 한다.

이와 같은 익산의 인문도시지원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아래 다양한 인문강좌와 인문체험, 그리고 인문축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으로써 인문 중심 도시로서 익산의 인문학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 프로그램별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문강좌는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익산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이해하고 조명하는 역사문화 인문강좌로 “고도 익산 인문학1”, “고도 익산 인문학2”, “글로벌 시대의 시민의식과 익산의 미래” 등을,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시민정신 인문강좌로 “시민정신과 치유의 문화”, “지역사회와 시민공동체”, “시민의 삶과 문화” 등을,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확산을 위한 문화예술 인문강좌로 “세계유산과 익산”, “문화예술과 인문 공동체”, “예술 속의 인문 이야기” 등을 각각 연차별로 매년 18강좌씩 3년간 총 54 강좌를 운영한다.

인문체험은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 등이 다양한 인문행사를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여러 참여기관의 프로그램 협조 및 홍보 지원 하에 “인문 고도 인문 탐방”, “풍경 익산 출사”, “찾아가는 인문라이브러리”, “자녀와 함께하는 인성 캠프”, “다다익산, 힐링문화체험”, “가람시조교실”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 운영한다.

인문축제는 연간 “인문주간”과 “인문 서동 익산” 등의 축제 행사를 2회 기획하되, “인문주간”은 전국적으로 집중되어 개최되는 행사기간에 맞춰 10월 중에 여러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하고, “인문 서동 익산”은 지역의 대표적 문화콘텐츠 유산인 서동설화를 기반으로 하여, 스토리텔링 공모전, 북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를 5월 중에 개최함으로써 백제문화 계승 및 인문학적 소양 확산에 기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홍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인문 르네상스 다다익산’ 블로그를 상시 운영하며, 페이스북 등의 SNS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인문강좌와 인문체험, 그리고 인문축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문강좌 연차별 계획

년차	분야	주제
1년차: 인문 공감 익산	문화예술	“세계유산과 익산”
	시민정신	“시민정신과 치유의 문화”
	역사문화	“고도 익산 인문학1”
2년차: 인문 부흥 익산	문화예술	“문화예술과 인문 공동체”
	시민정신	“지역사회와 시민 공동체”
	역사문화	“고도 익산 인문학2”
3년차: 인문 수도 익산	문화예술	“예술 속의 인문 이야기”
	시민정신	“시민의 삶과 문화”
	역사문화	“글로벌시대의 시민의식과 익산의 미래”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현황과 과제

■인문체험 연차별 계획

년차	주제
1-3년차 공통	"익산 고도 인문 탐방 1,2,3"
	"다다익산, 힐링문화체험 1,2,3"
	"찾아가는 인문 라이브러리 1,2,3"
	"가람시조교실 1,2,3"
1년차	"자녀 인성 캠프1"
	"풍경 익산 출사"
2년차	"몸 수련과 마음 훈련"
	"문화 익산 공감"
3년차	"자녀 인성 캠프2"
	"익산 다문화 한마당"

■인문축제 및 기타 연차별 계획

년차	주제
인문축제 (1-3년차 공통)	"인문주간 1,2,3"
	"인문 서동 익산 1,2,3"
기타 (1-3년차 공통)	'인문 르네상스 다다익산' 블로그 및 페이스북 운영

익산 인문도시지원사업을 통한 인문학 확산 및 활용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백제역사유적지구의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익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에 부응하고 역사 고도 익산의 위상 강화에 기여한다. 둘째, 익산의 주요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고도 익산에 인문도시의 역량을 더해 인문문화콘텐츠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한다. 셋째, KTX의 본격 운행과 맞물려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서의 익산에 대한 문화관광 수요에 맞도록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경제적 가치 향상을 도모한다. 넷째, 시민들의 인문소양능력 강화를 통해 시민의식과 배려의 인문정신을 함양하여 인문공동체를 형성하며, 문화 취약 계층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문학 대중화를 실현한다. 다섯째, 익산시의 시정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인문학연구소의 축적된 연구 역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이에 따라 익산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차년도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초 계획 대비 이행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년차(2015.9-2016.8) 당초 계획 대비 이행사항

	주제	이행경과	당초 계획 일정	실제 이행 일정	변경 사항 (변경 사유)
인문강좌	세계문화유산과 익산	완료	2016.6월 ~7월	2015.10월 ~11월	일정 조정(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일정 변경)
	시민정신과 치유의 문화	완료	2016.3월 ~4월	2016.3월 ~4월	-
	고도 익산 인문학1	완료	2015.10월 ~11월	2016.6월 ~7월	일정 조정("세계문화유산과 익산" 강좌" 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
인문체	익산 고도(古都) 인문 탐방1	완료	2016.4월	2016.5월	일정 조정(사업 수행에 따른 조정)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현황과 과제

험	다다익산, 힐링문화체험 1	완료 완료	2015.11 월 ~12월	2015.11 월 ~12월	-
		완료	2016.5월 ~6월	2016.7 월	일정 조정(사업 수행에 따른 조정)
	찾아가는 인문라이브러리1	완료	2016.2월 ~4월	2016.1 월 ~3월	일정 조정(행사 장소의 자체 계획에 따른 조정)
	자녀 인성 캠프 1	완료	2016.7월	2016.8 월	일정 조정, 명칭변경(행사 장소의 자체 계획에 따른 조정)
	풍경 익산 출사	완료	2016.5월	2016.7 월	일정 조정(익산시의 지역축제 "서동축제" 기간과 중복되어 일정 조정)
가람시조교실 1	완료	2015.10 월 ~12월	2015.10 월 ~12월	-	
인문 축제	인문주간1	완료	2015.10 월	2015.10 월	-
	인문 서동 익산	완료	2016.5월	2016.5 월	명칭 변경(익산시의 지역축제 "서동축제"와의 변별을 위한 명칭 변경)
기 타	문화 중흥 익산과 먹거리의 마음인문학	완료	-	2016.1 월	특별 심포지엄 행사 추가 (지역사회 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인문학 특별 심포지엄 개최)
	익산인문도시 블로그 및 SNS 활용	완료	1년차 전기간	1년차 전기간	-

자체평가 결과 1년차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이행사항은 대체로 일정 조정이나 명칭 변경 외에는 당초 계획이 모두 이행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6년 현재 2년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2016년 1월에 “문화 중흥 익산과 먹거리의 마음인문학”이라는 주제의 특별 심포지엄<sup>17)</sup>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이는 익산의 역사 문화콘텐츠와 식품클러스터 사업의 융복합적 모색을 통해 익산의 문화 산업 인프라 구축과 익산 인문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익산시와 시의회 등 지자체 인사들과 한국연구재단의 임원 등이 원광대학교의 주요 교직원들과 함께 대거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 바 있다. 익산시는 지리적으로 전주시나 군산시와 함께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라 할 수 있는데 반해, 이들 도시들에 비해 지역 발전의 방향 설정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가령 전주는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이자 한옥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군산 역시 근대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문화 관광 인프라의 구축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익산의 백제문화유산은 우리나라 4대 고도인 경주나 공주, 부여에 비해서 고대 동아시아 도성의 필수요소인 왕궁, 사찰, 능묘 관방유적 등과 더불어 자연경관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온 지역<sup>18)</sup>으로 인정되고 있다. 훼손되지 않은 백제역사유적지구의 경관은 그 자체로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한 가치이자 문화관광 유산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 결국 익산은 그 역사문화유산의 잠재력과 역량은 충분한 데 비해 이러한 자원들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의 모색과 실행에 있어서는 인근 도시들에 비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익산 인문도시지원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취지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 4. 결론에 대신하여-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과제

앞서 언급했듯이 인문도시지원사업은 인문도시 조성이라는 정책의 완성을 요구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시민들이 인문학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강좌나 체험, 축제 등을 통해 인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인문학 대중화와 활성화라는 사업의 취지에 부합한다. 특히 인문공동체로서 시민

17) 특별 심포지엄 “문화 중흥 익산과 먹거리의 마음인문학”은 2016년 1월 21일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컨퍼런스룸에서 진행되었다.

18) 최완규, 『왕도 익산의 현재적 메시지』, 『마한백제문화』 21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3, 10쪽.

의식의 함양과 성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인문학은 위기나 몰락의 담론이 횡행하는 데 비해 사회에서 인문학은 과잉이 우려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대학 등의 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그 지역을 인문도시화하자는 취지의 사업인 바, 현재 한국사회에서 노정되고 있는 인문학의 상반된 두 양상을 충분히 함께 고려하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역시 이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전라북도 익산시의 인문도시지원사업에 대해 그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현재 1년차 사업이 완료되고 2년차 사업이 겨우 시작된 단계에서 사업의 성과를 객관화된 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현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의 바람직한 진행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 인문도시 사업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익산 인문도시의 조성과 정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익산의 지역적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창의적인 인문도시 프로그램의 구축과 진행이 요청된다. 셋째, 강좌 중심의 수동적 교육 프로그램보다 체험 중심의 적극적 참여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의 문화콘텐츠와 연계한 인문진흥 콘텐츠의 개발과 운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관 주도, 혹은 대학연구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시민주도의 자발적 참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여섯째, 시민 사회-대학 연구기관-지자체의 상호 네트워크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일곱째, 다양한 인문진흥 소모임의 확대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여덟째,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등과 함께하는 인문 프로그램 모색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익산의 인문도시 조성은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 종료 이후 인문도시사업의 지속 방안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 그 온전한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 지속과 확산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연호, 「공감과 성찰로서의 문학적 상상력과 인문학」,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6집 2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 김동윤, 「원도심 재생을 통한 제주형 인문도시의 모색」, 『시민인문학』 28권 0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 문이화, 「고도 익산 백제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 『마한백제문화』 26권0호,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5.
- 박진우, 「어떤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가: ‘언론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인문학’의 현실과 과제」, 『커뮤니케이션 이론』 9, 한국언론학회, 2013.
- 박연규, 「인문도시를 위한 인문정책 방향: 수원시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28권0호,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 유승희, 「인문도시의 가능성」, 『플랫폼』 18호, 인천문화재단, 2009.
-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인문도시지원사업 추진계획서」, 2015.
- 이병수, 「삶과 삶의 인문학 공부길」, 임철우·우기동·최준영 외, 『행복한 인문학』, 이매진, 2009.
- 최완규, 「왕도 익산의 현재적 메시지」, 『마한백제문화』 21집,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3.
- 한국연구재단, 「2015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문도시지원사업 신청요강」, 2015.
- 알프레드 아들러, 라영균 옮김, 『인간이해』, 일빛, 2009.
- 얼 쇼리스, 고병현·이병근·임정아 옮김, 『희망의 인문학』, 이매진, 2006.

*Abstract*

## **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Humanities City Project(InMunDoSi) in Case of Iksan**

Kang, Yeon-ho(Wonkwang Univ.)

Since 2015, Iksansi and Wonkwang University embarked the Humanities City project(InMunDoSi) in Iksan, which title is “Humanities Renaissance DaDalksan- Ancient Capital and Humanities City Iksan”. Humanities City project has a meaning of popularization of Humanities in contemporary society of Korea. The Education Ministry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have promoted to develop the business of humanities and the Humanities City project, including several humanities lectures, humanities experiences, and humanities festivals. Especially the Humanistic City project has been common concern for both city and universities. It would be right to deal with the importance of humanities, for it would give us an opportunity to share the benefits of humanities for the public who are alienated.

The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In section two I shall examine the idea of Humanities City project(InMunDoSi) around the notion sugges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section three and final section I shall introduce the Humanities city project of Iksansi and Wonkwang University, 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Humanities City project in case of Iksan.

■ Key words: Humanities City project(InMunDoSi), humanities, Iksan, ancient capital, Humanities Renaissance DaDalksan, history and culture, cultural heritage, Baekje historical site, World Heritage

접수일자: 2016. 11. 10 심사일자: 2016. 12. 20 게재결정: 2016. 12. 21

